

〈일락정기〉를 통해 본 한문소설의 관습과 지향

이지영 *

I. 서 론

〈일락정기〉는 현재 2종의 이본이 남아 있는 한문소설이다.¹⁾ 지금까지 〈일락정기〉에 대해서는 크게 작가 규명에 관한 연구, 선행 작품과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및 이를 포함한 작품의 서사적 특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작가에 관해서는 신동익과 서현경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만화옹이 이이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²⁾ 그러나 현재까지는 작가를 이이순이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작자 추정은 여전히 유보적이다.

선행하는 소설과의 영향관계는 서문에서 작가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³⁾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신동익·정종대가 모티프 차원에서 유

* 아주대 강의교수

- 1) 신동익은 서울대 소장본과 나손본의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서울대본에 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손본을 선행본으로 보았다.(신동익, 「〈일락정기〉 소고」, 『국어국문학』99, 1986.) 이에 반해 서현경은 서울대 소장본과 나손본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나손본의 표현이 더 간결하고 다듬어진 것으로 보아 나손본이 후대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현경, 「〈일락정기〉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7.)
- 2) 신동익, 앞논문 ; 서현경, 앞논문 ; 한편 〈의부전〉의 작가도 만화옹으로 기록되어 〈일락정기〉 작가와의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류준경,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서울대 박사논문, 2003.)

사성을 거론한 아래, 선행 작품과의 유사성이 작품의 특성으로 지적되곤 하였다.⁴⁾ 그런데 선행 작품과의 유사성과 관련한 연구자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진경환과 이승복은 〈일락정기〉가 선행 작품을 과도하게 모방하고 있으며, 가부장제에 대한 전대 소설의 비판의식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⁵⁾

한편 작품의 서사적 특징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탁원정은 선행 작품과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장편화 방식을 고찰하였다.⁶⁾ 그리고 서현경은 한문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상징과 전고의 응축’이라고 하는 한문 글쓰기의 특징이 〈일락정기〉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지적하였다.⁷⁾

본고에서도 〈일락정기〉가 한문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을 중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자적 특성만을 부각시킬 경우 〈일락정기〉가 소설로 창작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문 글쓰기의 관습과 소설로서의 특징을 함께 검토해야만 한문소설 〈일락정기〉의 면모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일락정기〉의 문체적, 서사적 특징은 작가의 소설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며, 나아가 당시 한문소설을 향유하던 계층의 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우선 한문 글쓰기의 관습에 따른 문체적 특징을 고찰할 후에 선행 작품의 모방도 이러한 문체상의 특징과 관련시켜 해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서사적인 특징과 관련시켜 한문으로 소설을 읽고 창작하던 작가의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한다.

3) “所謂南征感義錄數篇 令人說去 便有感發底意矣 汝於是乎 不思子雲之僭竊 效西隣之
嘲 構成是篇”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80, 3면)

4) 선행 작품과의 유사성은 다음의 논문에서 거론되었다. 신동의, 「〈일락정기〉 연구-
선행 작품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8, 서울대 국문과, 1983.; 정
종대, 「〈일락정기〉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69·70,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1990,
7.;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박사논문, 1992,
이승복, 「〈일락정기〉의 전대소설 변용과 작가의식」, 『관악어문』 23, 서울대 국문
과, 1998.; 탁원정, 「〈일락정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6.; 서현경, 앞논문.

5) 진경환, 앞논문, 1992, 233-235면; 이승복, 앞논문, 71-81면.

6) 탁원정, 앞논문.

7) 서현경, 앞논문.

II. 인용과 차용의 글쓰기

1. 典故의 인용

〈일락정기〉에는 典故의 사용이 많다. 전고를 사용하는 것은 한문 문장 및 한문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일락정기」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예를 한번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嘗慨然歎曰 大丈夫生於宇宙之間 讀書擊印 所遭何時 凌霄駕風 其將安歸 不能追魯仲連踏東海而死 則亦將學張子房從赤松子而遊耳 歌柳耆卿望海潮詞 駕一葉小舟而轉向西湖之上 訪韓將軍騎驢之遺跡 咏岳武穆南指之墓樹(일찍이 개연 탄식하여 말하기를 “대장부가 우주 사이에서 태어나, 책을 읽고 칼을 치면서 때를 언제 만날 것인가? 밤을 무릅쓰며 바람을 타고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노중련처럼 동해로 가 죽지 못한다면 또한 장자방처럼 적송자를 따라 놀 따름이다.” 유기경의 「망해조사」를 부르며 한 조각 작은 배를 타고 서호를 향해 가서, 한장군이 나귀를 탔던 유적에도 가 보고 악무목 무덤의 남쪽을 향한 나무도 옮겨보았다:5면)⁸⁾

위 인용문은 柳英이 시대를 만나지 못함을 탄식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장면이다. 柳英은 1회에서 큰 뜻을 지녔으나 불우한 선비로 등장한다. 유영의 뜻은 노중련과 장자방의 고사를 통해 표현된다. 즉 유영은 진나라를 섬길 것을 거부하면서 차라리 동해에 빠져 죽겠다고 한 노중련의 고사나 부귀를 버리고 적송자를 따라 간 장자방의 일을 상기하면서 때를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세상을 버리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밝힌다. 그리고 세상을 만나지 못한 불우한 선비로서 유영은 한세충과 악무목 등의 유적을 다닌다.

「망해조사」를 불렀다고 한 유기경은 송나라의 柳永이다.⁹⁾ 西湖의 경치를

8) 본고에서는 다음의 영인본을 참조하였다. 인용면수는 영인본의 면수임을 밝혀둔다.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80.)

9) 소설에 등장하는 柳英은 그 命名방식을 통해서 보건대, 역사적 인물인 柳永에서

읊은 유기경의 「망해조사」 및 한세충과 악비의 유적을 언급한 이유는 서호를 역사적 공간으로 상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세충과 악비에 대한 언급은 소설의 등장인물인 유영을 至正년간의 인물로 설정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금나라에 맞서 싸우던 한세충과 악비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원이 통치하는 세상을 사는 유영의 불우함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전고의 사용은 등장인물을 형상화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다. 주인공 서몽상이 유배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주인공 서몽상은 배를 타고 謫所로 항할 때에 배가 통주에 이르자 풍랑을 만난다. 이 때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지만 서몽상 혼자만 당자방의 시를 읊으며 평상심을 유지하게 된다.

한립은 편안하게 앉아서 당자방의 '회수를 건너는 시'를 읊었다. 수십 리를 지나니 바람이 갖고 파도가 조용해졌다. (翰林晏如 而坐誦唐子方渡淮詩 過數十里風恬浪靜: 124면)

여기에서 당자방의 '渡淮詩'란 「謫官渡淮」를 말한다. 당자방이 유배를 가던 중에 회수를 건너는데, 배가 강 중간에 이르렀을 때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¹⁰⁾

그러나 서몽상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은 전체 서사전개와 긴밀한 관련은 없으며 단지 주인공의 인품을 형상화하기 위한 서술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인물 형상화 방식이다. 작가는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다만 주인공의 모습을 당자방의 모습과 동일시함으로써 주인공의 인품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보건대, 〈일락정기〉는 구체적인 정황서술보다는 역사적 전고의 상징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의 상징성이 소설의 서사에 투영됨으로써 구체적인 서사가 아닌, 관념적인 서사가 작품을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름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字 또한 智卿(柳永)과 柳卿(柳英)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10) “唐子方謫官渡淮至中流風作舟欲覆作詩”(『古今事文類聚』前集卷十七)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다.

2. 先텍스트의 차용

전고의 사용과 함께 〈일락정기〉의 문체적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先텍스트의 인용이다. 先텍스트의 인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先텍스트를 직접 인용한 부분도 많이 나타나지만, 약간 변개하여 차용하기도 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문체만 흡내 내기도 한다. 이밖에 텍스트를 인용하지는 않고 제목만 거론하기도 한다.

먼저 직접 인용하는 예를 살펴보자. 작품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은 『시경』이다. 서몽상은 家書에서 “詩云 王事靡監 不遑將母者 殆小子之謂乎: 203면”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빨리 뵙지 못하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인용과정에서 원텍스트의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경우도 나타난다. 홍의보는 서몽상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 또한 韓荊州(韓朝宗)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매번 蘇子由가 韓太尉에게 보낸 편지의 ‘산으로는 승산을 보고 물로는 황하를 본다’는 구절을 임송하면서 사람 중에 서한림을 만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僕亦以識荊之心 每誦蘇子由上韓太尉書 曰 於山見嵩 於水見河 於人獨不見徐翰林 以是爲恨)

홍의보가 언급한 대로 위의 구절은 「上樞密韓太尉書」의 “산 중에서 종남 산과 승산·화산의 높은 것을 보았고, 물 중에서 황하의 크고 깊음을 보았으며, 사람 중에 구양공을 만났으나 오히려 한태위를 만나지 못했다 하였습니다(於山見終南嵩華之高, 於水見黃河之大且深, 於人見歐陽公而猶以爲未見太尉也(欒城集卷二十二)”에서 따온 것인데, 출전을 그대로 밝히고 있으나 내용이 원텍스트와 동일하지는 않다. 원문을 차용하여 인용하면서도, 원문에 비해 간결한 문장으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 서몽상을 배웅하는 장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인용을 찾아볼 수 있다. 서몽상이 과릉으로 유배를 가게 되자 권현은 그를 배웅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로한다.

“악주에 도착하는 날에 나를 위해서 악양루에 올라 한번 경력 4년 범중엄이 기록한 것을 한번 보게나. 칠백리 동정호에 ‘멀리 뻗은 안개’와 ‘구슬 같은 수면’, ‘하얀 달빛’과 ‘반짝이는 물결’ 등 그 아름다운 경치가 기이하기도 하겠지만, 이른바 ‘묘당에서나 강호에서나 나아가도 근심이요 물러가도 근심이라’ 하는 것은 옛 군자의 심정을 잘 표현하였다네” (到州之日 爲我登岳陽樓上 試看慶曆四年范希文所記 七百里洞庭湖上 長烟沈璧 眇月耀金 其爲勝賞 奇則奇矣 而所謂廟堂之上 江湖之間 進亦憂 退亦憂者 善畫出古君子方寸中來也: 100면)

위에서 권현은 서몽상에게 파릉에 가게 되면 악양루에 올라 볼 것을 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범중엄의 「악양루기」 때문이다. 권현의 말은 「악양루기」의 “或長煙一空 眇月千里 浮光耀金 靜影沈璧 居廟堂之高 則憂其民 處江湖之遠 則憂其君 是進亦憂 退亦憂 然則何時而樂耶”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선택스트는 그대로 인용되기 보다는 약간의 변개가 가해져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장면에서 謝瑋는 서몽상을 배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추부자가 말하지 않았는가? 하늘이 큰 임무를 내려줌에 반드시 먼저 그 살과 뼈를 힘들게 하니니 마음을 움직여 참는 것을 기르려 함이다. (鄒夫子不云乎天之降大任也 必先勞苦其筋骨 動心忍性增益 : 100면)

위에서 밑줄 부분은 「맹자」의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함에,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 살과 뼈를 힘들게 하며 그 몸을 짊주리게 하고, 그 행동을 고달프게 하며 그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 참는 심성을 기르고자 하기 때문이다(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行, 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曾益)”에서 인용된 것이다. 맹자의 말을 조금 줄여서 인용하고 있다 는 점에서 앞서의 인용방식과 유사하다.

또한 사위는 서몽상을 배웅하면서 다음과 같이 李師中의 「送唐介貶英州別駕」를 인용한다.

마침내 이사중이 당개를 보내며 쓴 시를 인용하여 “하늘이 황제를 위하여 사직을 부지하리니 그대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리오?”라고 하였다. (....遂誦李師中送唐介詩 曰 天爲吾皇扶社稷 肯教夫子不生還:100면)

이밖에 출처를 밝히지는 않으면서 문투를 흉내 내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다음의 예가 이에 해당한다.

황제가 말하기를 “오호라! 너 천상이여! 이리 와라 천상이여!(皇帝若曰 鳴呼 咨汝天祥 來汝天祥: 7면)

위 구절은 문천상이 천상에서 황제를 만날 때에 황제가 문천상에게 하는 말이다. 황제의 말에서 ‘若曰’이나 ‘咨汝’, ‘來汝’는 『서경』등 역사서에서 등장하는 문투이다. 넉 자씩 끊어지게 한 것도 『서경』을 흉내 낸 문투라고 할 수 있다. 황제의 말에서 『서경』의 문투를 흉내 냈으로써 친제가 문천상을 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목이나 편명만 거론한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텍스트는 『시경』이다. 『시경』은 앞서 말한 대로 구절이 직접 인용되기도 하지만 작품에서 편명만 언급되기도 한다. 권소저가 상춘정에서 아버지와 『시경』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권소저가 여승 혜원과 함께 백련암 절정에 올라서 시경의 「卷耳」를 읊는다든지,¹¹⁾ 위씨가 권소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자신이 서씨 집안에 들어올 때 권소저로부터 받은 시경 「周南」의 필체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내용에서 『시경』이 언급되고 있다.

『시경』뿐 아니라 『효경』과 『춘추』가 언급되기도 한다. 권소저는 남장하고 집을 떠날 때에 『시경』과 『효경』을 가지고 나오며, 도중에 정한림을 만나 서몽상으로 행세하며 정소저와 서몽상의 정혼을 주선할 때에 「효경」으로 납채한다. 또 홍희보는 처음 서몽상과 만날 때에 『춘추』를 가지고 온다.

그런데 〈일락정기〉에 古典으로 인정받는 텍스트만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는 소설도 적지 않다. 서필은 서몽상이 지은 早梅詩 가운데 “一枝消息百花兄 曾待巖廊用作羹(27면)”가 ‘不問調羹’에서 왔다고 하였는데, 이

11) 遂與尼媯步上白蓮庵絕頂 詠卷耳詩三章 不樂而歸: 121면

부분은 『전동여화』의 “調羹不問眞消息”에서 따온 것이다. 또 군담에서는 「삼국지연의」의 내용이 자주 언급된다.¹²⁾ 예를 들어 서몽상이 동철산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제갈량의 화공법과 ‘西城 彈琴之計’를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소설뿐 아니라 우리나라 소설의 문장도 자주 인용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 ② 부인이 무슨 큰 복이 있어 이처럼 뛰어난 아이를 낳았소?(夫人以何洪福 生此奇俊: 20면)
- ④ 황상께서는 어질고 밝으셔서 거의 요순 시절의 정치에 가까웠는데, 한번 엄승이 정권을 잡은 뒤로는 성종이 가리워 들리는 것이 없으니 나라의 기강이 쇠퇴하여 떨치지 못하였소(皇上慈諶仁明 庶幾熙皞之治 而一自嚴嵩秉政之後 聖聽壅而無聞 國綱退而未振: 21면)
- ⑤ 실로 낭자의 총혜함은 알고 있었지만 음율에 이토록 정통한 줄은 몰랐었네. 채문희(채염)이 거문고 줄이 끊어진 것을 안 것도 별 일 아니고 사자연이 수선곡을 연주한 것도 어찌 죽히 말하겠는가?(固知娘子之聰慧 而不料音律之精通 至於斯也 蔡文姬之知斷絃 特一餘事 謝自然之奏水仙 何足道也: 86면)

위의 인용문은 각각 〈창선감의록〉·〈사씨남정기〉를 인용한 예들이다. ②는 〈창선감의록〉의 “夫人何福 生此奇兒”, ④는 〈창선감의록〉의 “皇上慈諶仁明 而一自嚴嵩秉權 國事日非”를 변용한 것이다. 그리고 ⑤는 김춘택이 번역한 〈사씨남정기〉 가운데 “吾固知娘子之多才 亦不謂其精通音律乃爾 向者琴聲足令蔡文姬 不能專美矣”와 흡사하다. 구절이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은 〈일락정기〉의 작가가 〈창선감의록〉이나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읽고 수용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 이 밖에 〈일락정기〉에 인용된 「맹자」의 ‘動心忍性’이란 구절은 〈창선감의록〉에서 여승 청원이 남소저에게 한 말¹³⁾과 맥락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창선감의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선택스트가 인용 및 차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선택스트 인용의 의미는 인용되는 텍스트가 古典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구분할 필

12) 「삼국지 연의」의 영향에 대해서는 탁원정, 앞논문과 서현경, 앞논문 참고.

13) 〈창선감의록〉의 6회에서 청원은 자신을 살려 주어 고난을 계속 겪게 하는 것을 원망하는 남소저에게 하늘이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은 더 큰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夫所謂動心忍性者 不獨男子而夫人亦然也”라고 한다.

요가 있다. 먼저 경전 등 古典으로 인정되는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경우는 작가의 이념적 지향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시경』의 편명을 거론하고 「맹자」를 차용함으로써 이 작품이 규범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고전의 문장을 인용하는 것은 작가 자신의 문식을 과시하려는 욕망과도 관련이 있다 한문은 교육받은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쓸 수 있기에 고전의 인용은 바로 교육수준이 높음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일락정기〉의 작가가 고전에서 문장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선텍스트의 인용은 한문 글쓰기의 관습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락정기〉에서는 고전으로 인정된 권위 있는 텍스트뿐 아니라 중국 및 우리나라의 소설도 인용하였다. 〈일락정기〉가 전대 소설의 문장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은 작가가 이들 작품을 한문 문장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일락정기〉의 작가는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구운동〉을 ‘한문 문장’으로 읽었던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이들 소설의 문장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문소설 〈일락정기〉는 전대의 소설을 수용하는 방식에서도 한문 글쓰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선텍스트의 수용은 서사의 개연성과는 별 관련이 없다. 일례로 謝瑋가 서몽상을 배웅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대로 謝瑋는 「맹자」 및 이사중의 시를 인용하면서 유배가는 서몽상을 위로한다. 謝瑋가 인용한 「맹자」의 구절은 선한 사람이 고난을 겪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창선감의록〉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창선감의록〉에서 부모와 헤어져 겨우 살아 남은 남소저는 다시 조씨가 보낸 독약을 먹고 여승 청원에 의해 구조되는데, 남소저는 자신이 살아서 고난을 겪는 것은 죽느니만 못하다고 말한다. 그때 청원이 “動心忍性”을 인용하면서 남소저를 위로하였다.

〈일락정기〉에서 사위가 서몽상을 위로하는 장면은 선텍스트를 수용한 것 이지만, 서몽상은 남소저처럼 극심한 고난을 겪지 않는다. 서몽상은 엄승의 사주를 받은 급사중 권연의 참소로 인해 不仁不孝의 누명을 쓰로 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지만 바로 소주지부 사위의 상소로 인해 누명을 벗게 된다. 그

리고 서몽상을 모함했던 권연은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황제에게 아뢰었다는 죄목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이처럼 누명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엄승은 누명 중에 시비를 베어 죽였다는 죄목이 확실히 해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를 보낼 것을 주장하고 이에 황제가 어쩔 수 없이 서몽상을 유배 보내게 된다.¹⁴⁾ 엄승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유배를 가게 되었지만 황제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는 그만큼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¹⁵⁾

이처럼 주인공의 유배가 심각한 ‘고난’이라고 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위가 주인공을 배웅하면서 장황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서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先텍스트에 대한 작가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담론으로서의 소설

1. 갈등의 약화

그러면 한문 글쓰기의 관습 안에서 창작된 〈일락정기〉의 서사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좀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 작품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첫 번째 갈등은 엄승과 서몽상의 갈등이다. 그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엄승은 조평의 말을 듣고 서몽상을 모함하여 유배가게 한다. 엄승의 모함으로 서몽상은 형부로 암송되는데 바로 소주 지부 사위의 상소로 누명이 벗겨진다. 앞서 말한 대로 서몽상이 유배되기는 하지만 황제가 이미 서몽상을 신뢰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유배를 보낸 것이어서 갈등의 정도는 약하다. 더구나 서몽상이 유배가는 길에 황제는 중사를 보내어 백리 밖까지 호위하기까지 하였다. (是時天子遣中使護於白里之外:101면) 이러한 상황에서 엄승과 정치적 대결에서 패배하여 유배를 간다고 보기는 힘들다.

14) “至於剖婢一案 請從罪疑之曲 薄加恩讐 未知何如 上不得已許之” (98-99면)

15) 특히 유배가는 장면에서 “是時天子遣中使 護於白里之外”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정치적 패배로 인한 유배의 의미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갈등은 위계선과 권소저의 처첩갈등이다. 서몽상의 첨 위계선은 권소저가 자신의 노래에 대해 충고한 일로 권소저를 미워하게 되며 권소저를 축출하려 모계를 꾸미고 조평과 통정한 후에 서몽상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두 번째 갈등도 심각하게 전개되지는 않는다. 위계선이 권소저를 모함하였지만, 시어머니인 유씨가 이미 위계선의 흉계를 간파하고 있었으며 서몽상도 위계선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인의 모함으로 인한 선인의 고난이 심각하지 않은 점은 첫 번째 갈등과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권소저는 위계선 및 조평의 흉계로 옥에 갇히기는 하나, 백의선녀가 나타나 동정호에 있는 백련암으로 데리고 간다. 권소저는 그 곳에서 서몽상과 만날 때까지 편안히 머무른다. 〈창선감의록〉이나 〈사씨남정기〉의 주인공이 겪는 고난에 비하면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오랑캐와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서몽상이 유배간 사이에 철목이 침입하여 서몽상은 장수로 기용된다. 철목을 정벌하는 장면은 1회 정도의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적장과의 대결은 단순하다. 먼저 철목과의 싸움에서는 오랑캐에게 투항한 명나라 장수 유흥이 등장한다. 유흥은 지력을 갖춘 인물로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유흥은 서몽상과의 첫 대전에서 서몽상의 일장 연설에 놀라 말에서 떨어져 죽는다. 유흥을 잊은 적장 힐률은 용성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용성왕은 명나라의 복병에게 쫓기던 중 갑자기 나타난 송나라 장군 육수부에게 목을 베인다. 그리고 힐률이 용성왕의 잘려진 머리를 보고는 놀라 말에서 떨어지자 흥의보가 힐률의 머리를 벤다.

그렇다고 〈일락정기〉의 군담 자체가 소략한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서 군담의 비중은 그리 낮지 않다. 다만 군담의 긴장감은 약해진 채 명나라 군사의 일방적인 우세 속에서 군담이 전개되고 적장은 쉽게 패배한다. 이는 동철산과의 대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철산과 대결하는 군담은 길게 서술되고 있지만 적장은 일방적으로 패배하기만 한다. 그리고 동철산은 자객으로 보낸 위팔아가 항복한 사실을 알자 바로 투항해 버린다.

이상으로 살펴본 여러 갈등은 악인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쉽게 패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엄승이나 위계선, 힐률 및 동철산은 주인공을 고난에 처하게 할 만큼 강한 세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주인공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에서조차 악인들은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일락정기〉의 서사적 갈등은 심각하게 전개되지 못한다.

이처럼 갈등이 약화된 원인은 작가가 내세운 관념적 당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관념적 당위가 강하면 강할수록 서사적 갈등은 단조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악인은 악인이기에 패배해야만 하고 선인은 선인이기에 승리해야 한다는 당위가 강조되면 선인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모순은 배제된다.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에서 선인이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전고와 先텍스트를 중시하는 글쓰기 경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전고와 先텍스트를 차용하면서 〈일락정기〉의 등장인물들은 현실적인 생동감 대신에 관념적이고 규범적인 인간으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소설에서의 서사적 상황은 이미 규정화된 先텍스트의 문맥으로 해석되면서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와는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다.

2. 이념의 강조

관념적 당위가 앞선다는 점에서 〈일락정기〉는 작가의 이념적 지향이 서사적 지향보다 강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등장인물들의 대사에서도 나타난다.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이 일장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서봉상이 아버지 서필을 설득하는 장면이나, 권부인이 위부인의 음악에 대해 충고하는 장면, 서홍이 철목을 정벌하러 가서 일장 연설로 유홍을 놀라게 하는 장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서봉상이 유홍에게 일장 연설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유홍은 서봉상을 보고 시세에 따라서 처신해야 한다고 하면서 철목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는데, 이에 서봉상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장군은 지난 번 유주의 싸움에서 순절한 선비 유자원¹⁷⁾을 모르십니까? 자원은

16) 이승복은 〈일락정기〉가 관념적이고 막연한 도덕적 당위가 이원적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전소설과 기문의식, 월인, 384면.)

성의백의 후손으로 당당이 하복의 바람 가운데 서 있어 살아서는 범양의 오랑캐를 꾸짖고 죽어서는 저양의 귀신이 되었습니다. 천자께서 들으시고 가상이 여기며 칭찬하시기를 “사십 육군에 한 사람 의로운 선비가 성의백의 후손인가? 가위 거친 바람의 억센 풀이요 어진 정치의 어진 신하라” 하시며, 즉일 성의백의 사당에 제를 올리고 장군의 마을에 정려문을 내리시면서 어필로 ‘충신 효손 유장군의 마을’이라 하였으며 그 처자를 살펴보셨습니다. 저 또한 성의백의 외손으로 명령을 받들고 복별하러 왔으니 한편으로는 국가를 위해 분을 떨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장군을 위한 복수의 땅으로 삼을 것입니다. 곧 당당한 열사의 정령이 신병이 되어 성조의 세력을 튼튼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게 오늘 위나라의 항복한 오랑캐가 소자경(소무)을 설득한 말로써 대낮에 조롱한 말은 장군의 충성스런 영혼이 장차 몽상의 기운을 격동하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한 몽상의 뜻을 시험하려는 것입니까? 밝은 태양 아래 맹세컨대, 장군의 죄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將軍得非向來幽州之戰殉節士劉子遠者 子遠以誠意伯之賢裔 堂堂特立於河北風靡之中 生罵范陽之羯奴 死化睢陽之厲鬼 天子聞而嘉尚爲之稱歎曰 四十六郡 一人義士 獨誠意伯之孫乎 可謂疾風之勁草 板蕩之誠臣 卽日致祭於誠意伯之祠堂 恩旌于將軍之鄉閭 以御筆題之曰 忠臣孝孫劉將軍之間 存問將軍之妻孥 僕亦以誠意伯之外裔 奉辭北土 一以為國家洩憤之舉 一以為將軍復讐之地 則意以爲堂堂烈士之精靈 化作神兵以壯聖朝之勢矣 不意今日以衛降虜說蘇子卿之言 挪揄於白晝者 意者將軍之忠靈 將激夢祥之氣然歟 抑亦試夢祥之意而然歟 白日之下 誓不爲將軍之罪人也)

서몽상은 오랑캐와 맞서 싸우다 순절한 장수 유자원이 성의백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죽은 일을 거론한다. 그리고 자신을 설득하려는 유흥의 말을 한나라 소무를 설득하려 한 이릉의 말에 비유하면서 자신을 결코 오랑캐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한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유흥은 괴를 토하고 말에서 떨어져 죽는다.

서몽상의 장황한 답변은 오랑캐를 용납할 수 없다는 주인공의 기개를 드러낸 것이지만 주인공의 말로써 유흥이 죽었다는 말은 서사적 개연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서사적인 개연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작가가 위와 같은 주인공의 말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작가 자신의 이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작가는 오랑캐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

17) 유자원은 역사적으로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가공한 허구적 인물인 듯하다. 다만 東晉 때 유요를 섬겼던 遊子遠을 모델로 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는 당위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가의 이념은 등장인물의 장황한 대사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작품 서두의 몽유록 형식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1회의 내용은 2회 이하의 내용과는 구분되는, 액자 밖의 이야기이다. 이 부분은 원나라 말기의 선비 유영이 문천상·육수부와 만나고 돌아오는 이야기와 문천상이 준 복약을 먹고 천상으로 올라가서 문천상이 천상에 득좌하여 인간세상으로 적강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2회부터는 문천상이 서동상으로 태어나 보내는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 중에서 유영이 문천상·육수부와 만나는 장면은 몽유록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원나라 때 선비인 유영은 가을날 밤에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다가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 신선은 복건을 쓴 장수와 만나 옛일을 회고하며 슬퍼하는데, 그들이 바로 문천상과 육수부이다. 유영은 문천상과 육수부의 대화 내용을 엿듣다가 그들 앞에 나아가 인사하고 함께 술 마시고 시를 읊는다.

문천상은 남송의 신하로 원나라에 끝까지 항거하다가 사형을 당한 인물이다. 오랑캐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섰다는 점 때문에 조선 후기 사대부들은 문천상에 대해 각별한 감정을 지녔던 듯하다. 이 점은 문천상 묘에 대한 당시 사대부들의 태도에서 확인된다. 老稼齋 金昌業를 비롯해서 연경에 간 사행들은 관례처럼 문천상의 묘를 방문하고는 그 퇴락함에 상심하곤 하였다.¹⁸⁾ 문천상에 대한 각별한 감정은 명나라에 대한 유민의식과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즉 오랑캐 나라인 청나라에 굴복하

18) 노가재는 “유봉산과 더불어 두 번 절함에 마음이 매우 감개무량하였다. 묘우는 황량하여, 그 향화가 드움을 알겠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상심케 한다”(연행일기, 국역 연행록선집 4(중판), 민족문화추진회, 1989, 237면.)라고 하였으며, 홍대용은 “부혹 동편의 문승상 묘당이 이시니 전부터 스횡이 보는 곳이라 큰 문 벗고서 물을 느려 드리갈 시 혼 사람이 나와 인도호야 드러가니 닥憔 사람인가 시브더라 스당집은 거요 삼시간이 되고 단청이 다 퇴락하고 스면이 문허져 업더지게 되고 뜻글이 상탁의 그득호여시니 소견이 참연호더라이곳이 쳐쳐의 묘당을 승상호여 불길호 소상의 사치를 궁극히 호여시티 흘노 만고 충절을 고히 넉일 줄을 모른니 애돌온 일이리라”라고 하여 문천상 묘에 대한 감회를 서술하고 있다. (율병연행록, 국학자료 총서 제 3집, 명지대 출판부, 1983, 178-179면.)

지 않으려는 조선의 사대부들은 남송의 유신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락정기〉의 작가가 서두에서 문천상과 육수부를 등장시킨 것도 이같은 의식의 일환이 아닐까 한다. 문천상과 육수부의 대화에서는 남송의 멸망에 대한 회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전고가 많이 사용되었다.

문체의 특징도 바로 몽유록 형식과 관련이 있다. 몽유록은 등장인물들이 역사적 사건이나 철학적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기에 전고가 많이 인용된다. 텍스트 안의 허구적 상황보다는 텍스트 밖의 담론에 기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서사성은 약하다. 다시 말하면, 인물 간의 갈등에 의해서 서사가 전개되지 않고 전고를 중심으로 한 등장인물의 대화가 중심이 되면서 서사적인 측면은 약화되는 것이다.¹⁹⁾

〈일락정기〉는 문천상이 옥황상제에게 둑죄하여 인간세상으로 적강한 후 서몽상으로 일생을 산다는 점은 몽자류 소설의 몽유양식과 유사하지만, 유영이 문천상·육수부와 만나는 장면은 몽유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 이는 흔히 〈일락정기〉가 모방하였다고 추정하는 〈운영전〉과도 차이가 있다. 〈운영전〉의 서두는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순수한 '액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락정기〉에서 유영과 문천상·육수부의 만남은 작가의 의식을 담지하고 있다.

문천상과 육수부의 등장이 2회 이하 서몽상의 이야기, 즉 액자 안의 이야기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중간에 유영이 서몽상에게 도술을 전수하는 도인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철목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육수부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회의 이야기는 서몽상의 일생과 그리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결말에서조차 서몽상은 문천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결말부분은 서몽상

19) 이 점에서 몽유록과 몽유양식은 구분되어야 한다. 몽유양식은 우리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어 몽자류 소설이라는 일군의 소설을 이룬다. 몽유양식은 꿈과 현실의 이원적 구성을 이루는 점에서는 몽유록과 유사하지만 액자 안의 이야기가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인물간의 대화 및 토론이 중심이 되는 몽유록과 다르다.

이 죽어 천상으로 가는 장면과 자손에 관한 서술로 나뉜다. 서몽상의 죽음과 천상으로의 복귀는 적강구도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육수부와 함께 옛일을 회상하는 문천상의 존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서두에 서술된 문천상과 육수부의 대화는 작품 전체의 서사 안에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서두에서 문천상과 육수부를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관념을 우선시하는 작가의 성향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작가는 서문에서 〈일락정기〉의 내용이 비록 허구지만 복선화음의 이치가 있다면 또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²⁰⁾ 이 말은 소설에 대한 사대부의 보편적인 태도이지만, 상투적 어구라고 볼 수만는 없다. 오히려 한문으로 소설을 읽고 쓰는 계층에게 ‘복선화음의 이치’는 서사적 흥미보다 중시되는 당위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일락정기〉의 작가 역시 소설을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보지 않았다.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관념적 태도로 인해 당대의 도덕적, 역사적 담론을 소설속에 끌어들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작품 전체의 서사와는 긴밀한 관련이 없는 문천상과 육수부의 대화를 서두에 넣어 자신의 소설이 ‘의미있는 담론’이 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을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보지 않는 것은 소설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는 당대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일락정기〉의 경우는 작가의 관념적 세계관, 당위로서의 세계관을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쳤다. 담론으로서의 소설을 지향하였기에 작가의 보수적 세계관을 매개할 적절한 서사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²¹⁾

20) “是書之作 雖出於架空構虛之說 便亦有福善禍淫底理 則此其非罪我知我者乎:3면”

21) 이는 몽유록이 지니는 한계와도 맞물려 있다. 몽유록은 이를 교술로 보자는 의견이 있을 만큼 서사성이 약하다. 허구이면서도 텍스트 밖의 담론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풍부하게 서사를 진행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몽유록은 담론으로서의 한문소설을 극단으로 밀고 나간 예라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그동안 〈일락정기〉는 〈창선감의록〉이나 〈사씨남정기〉등 전대 소설의 모방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고찰되어왔다. 이 글은 〈일락정기〉가 한문소설이라는 점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락정기〉는 전고의 인용과 텍스트의 차용이라는 한문 글쓰기의 관습 속에서 창작되었으며, 그러한 관습 속에서 전대 소설의 문장까지도 차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문 글쓰기의 관습을 지향하는 것은 서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전고나 텍스트에 기대어 서술함으로써 고정되고 규범화된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갈등이 주인공의 절대적 우위 안에서 진행되면서 단순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일락정기〉 작가의 이념적 지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소설을 창작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작품이 의미있는 담론으로 읽히기 바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 의식은 서사의 전개를 통해서 표출되지 못하고 등장인물의 설교조의 언술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서두에서 몽유록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관념적인 작가의 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문천상이나 육수부를 통해서, 또 오랑캐를 정벌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청나라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의식은 작품 전체의 서사에 흡수되지 못하기에 부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작가의 이념 지향이 서사에 대한 흥미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락정기〉의 이 같은 양상은 조선 후기 한문소설의 특징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소설을 담론으로 보려는 한문소설의 향유층은 이념과 관념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락정기〉는 그러한 한문소설 향유층의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참고문헌

- 연행일기, 국역 연행록선집 4(중판), 민족문화추진회, 1989.
- 을병연행록, 국학자료 총서 제 3집, 명지대 출판부, 1983.
- 〈일락정기〉,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80.
- 〈창선감의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사씨남정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 류준경,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서울대 박사논문, 2003.
- 서현경, 「〈일락정기〉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7.
- 신동익, 「〈일락정기〉 작자 소고」,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1986
- _____, 「〈일락정기〉연구」, 『관악어문연구』 8, 서울대 국문과, 1983.
- 이승복, 「〈일락정기〉의 전대소설 변용과 작가의식」, 『관악어문』 23, 서울대 국
문과, 1998.
- _____,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 정종대, 「〈일락정기〉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69 · 70,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1990.7.
-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대 박사논문, 1992,
- 탁원정, 「〈일락정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6.